

經營의 國際化와 技術開發

◇東亞建設産業(株)◇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러하듯 과거는 늘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것이며, 미래의 구상은 항상 원대하고 희망차다. 새해 새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벽찬 감격과 새날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동안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큰 변화와 충격이 일어났던 한해였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인의 저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은 물론 세계 4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무역량 1천억달러시대를 개막하여 선진경제권의 일원이 되었고 또한 공산권과의 직접교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가시화하는 몇가지 징후들을 겪으면서 신시장 개척의 새로운 전기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맛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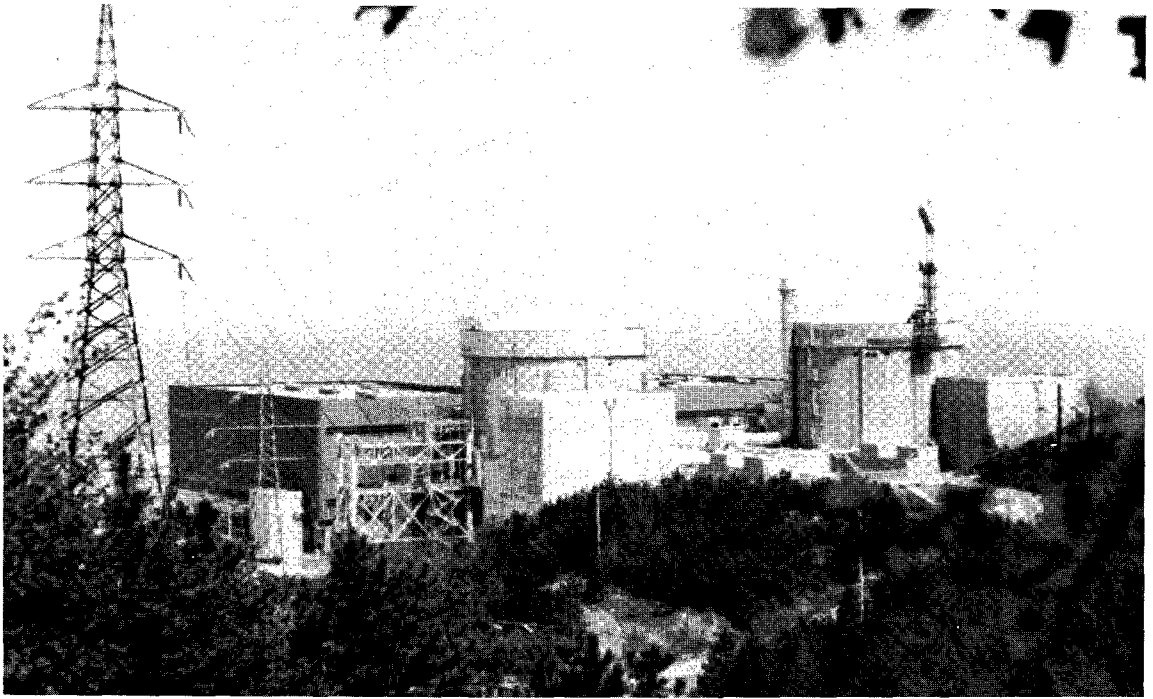
그러나 국내의 전반적인 상황이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흑자경제로 인한 원화절상의 심화와 시장개방압력 가중,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경쟁상태 등 많은 어려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건설산업(주)은 금년 한해를 경영 각 분야의 혁신과 국제화 달성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그룹차원의 최대사업인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년에 있어서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리비아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9년 9월 1일 송수관개설을 완료하여 아즈다비아 저수조에 4백만톤의 물을 저장해야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미 시작된 365담수작전을 차질없이 전개함으로써 리비아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세계건설사에 위대한 금자탑이 기필코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추후 발주예정이고 동아건설산업(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제 2차 대수로공사 수주에 한 걸음 앞서나갈 전망이다.

한편 원자력부문에 있어서는 동아건설산업(주)이 시공하는 울진원자력 1, 2호기 공사가 1982년 3월 착공 이래 1호기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1988년 9월 10일 상업운전개시를 시작했다.

- 울진원자력 1호기 추진경위를 대략 살펴보면,
- 1982. 3. 2. 토건공사 계약 체결(동아건설산업(주)-본공사 착공)
 - 1982. 3. 5. 원자로건물 기초굴착 착수
 - 1983. 1. 26. 원자로건물 최초콘크리트 타설
 - 1985. 6. 1. 원자로 설치
 - 1987. 3. 18. 상온수압시험 완료
 - 1987. 7. 21. 고온기능시험 착수
 - 1987. 12. 24. 핵연료장전 착수
 - 1988. 2. 25. 초임계 도달



▲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 1988. 4. 7. 계통병입
- 1988. 8. 29. 성능시험 완료
- 1988. 9. 10. 상업운전 개시

이것은 총공정이 1호기는 100%, 2호기는 약 95%의 진도로서 울진원자력 건설의 준공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료를 포함한 업무전산화의 일환으로 공사관리기법 합리화도 성숙된 단계로 도입되어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가절감 및 기술축적에 크게 기여했다.

동아건설산업(주)은 국내의 수많은 프로젝트 건설 및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깊이 관여해온 업체로서 그 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후속기 건설 및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예정이며,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방사성폐기물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은 소내에 임시저장형태로 보관중인 고·중·저준위 폐기물 및 민간기관과 연구계통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

물로 구분되는데, 이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관리계획에 따르면 소내 저장용량의 확장방안은 각 발전소의 수명기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기 위한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소외 저장시설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중간 저장시설 건설이 두번째 해결책으로 계획된 바, 재순환과 영구처분 사이에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생길 예정이어서 동아건설산업(주)에서는 이를 위한 시공기술축적 및 기술개발 등 본사업 참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중인 울진원자력 1, 2호기 건설공사에 관여해온 모든 종사자가 난관과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1호기의 정부인가공기를 무난히 준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2호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향후 원자력 관련 시설공사와 후속기 참여에 반드시 일익을 담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